

問題다. 器機作用은 天文觀測의 水準을 말하는 것이지 天文觀測 有無를 決定하는 것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瞻星臺는 現代의 天文臺와는 다르나 當時의 水準으로서는 틀림없는 天文觀測所이며, 다만 거기서 어떠한 水準의 天文觀測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占星의인 呪術的 要素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나가 앞으로 더욱 밝혀져야 될 문제로 생각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사이 우리 學界의 一角에서는 先人들의 業績을 無視하고 確實한 根據 없이 外國學說을 갖다 붙이거나 해서 멋대로 學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猛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말하자면 恣意的인 幻想을 現實로 錯覺하고 있다는 事實을 깨달을 必要가 있다.

瞻星臺에 관한 所感

仁荷大 李 殷 晟

慶州瞻星臺가 왜 세워졌는가에 관하여 여러 意見이 나왔었다. 이에 앞서 淸성대의 構造와 規模 및 方向 등에 관하여는 여러 會員에 의하여 세밀하게 調査되고 測定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端緒를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三國遺事의 「善德王知幾三事」條 末尾에 『是王代, 鍊石, 築瞻星臺』라고 간단히 적혀 있고, 東國輿地勝覽 「慶州」條에 『瞻星臺, 在府東南三里, 善德女王, 陳石築臺, 上方下圓, 高十九尺, 通其中, 人由中而上下, 以候天文』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1. 淸성대의 外貌는 매우 優雅한 曲線美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매력을 끌며 佛教思想을 받은 느낌이 난다. 特히 그 外貌가 須彌山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에 대하여 同感이다. 그렇다고 해서 淸성대를 단순히 佛教의 象徵으로만 본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臺의 頂上이 丸狀한 點으로 보아, 이곳에서 어떠한 作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2. 淸성대를 一種의 祭壇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었다. 만일 이것이 祭壇이라면 祭物을 차려 놓고 祭官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頂上이 祭壇으로서는 너무 높고 좁은 편이라 생각된다. 무슨 理由로 굳세하게 祭物을 높은 臺上에 올려 놓는 不便을 겪게 하고, 여러 祭官이 거처장스러운 祭服을 입고 오르내리도록 할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女服을 입은 善德女王의 動作에 대한 苦役을 살펴 주지 않는 設計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3. 淸성대가 天文觀測에 쓰였다면 왜 平地에 세웠을까라는 의문이 난다. 그 理由는 淸성대를 宮殿에 가까이 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淸성대는 中國의 靈臺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晉書天文志 中宮條와 隨書天文志 經星中宮條에 『角外三星曰明堂, 天子布政之宮, 明堂西三星曰靈臺, 觀臺也, 主觀雲物察符瑞候災變也』라고 적혀 있고, 宋史 卷四十九 天文志에는 『靈臺三星, 在明堂西, 神之精明曰靈, 四方而高曰臺, 主觀雲物察符瑞候災變也』라 적혀 있다. 中國의 古天文圖에 의하여도 古代별자리 近三百자리 中 靈臺와 明堂과는 隣接해 있다. 이로 보아 瞻星臺는 天文과 氣象의 異變을 관측하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 관측의 主目的이 마치 占치는 데에 이용된 듯하다. 古代의 王이 占星術 등 卜術에 많은 關心을 가진 이유는 革命을 두려워하고 國亂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 中 占星術師는 日官을 겸했으며 王의 政治顧問으로 쓰여 帝王의 側近에 있었다.

淸성대가 平地에 있다 하여 何等の 異議가 있을 바는 아니다. 書雲觀志 官廨條에 『昌慶宮之金虎門外, 慶熙宮之開陽門外, 皆有觀天臺』라고 적혀있는데, 그 註에 觀天臺는 『俗名曰 瞻星臺』로 적혀 있고, 또 廳事의 南쪽에 돌을 쌓아서 臺를 만들어서 그 위에 小簡儀를 安置시켜서 時를 측정했다고 적혀 있다.

4. 경주의 淸성대를 圭表나 日晷(日晷)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런 意見들을 말한 분이 있지만 一吐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측정장치는 西洋에서 르네상스를 전후하여 金屬細工師의 精密度에 대한 不滿의 영향을 받은 이후부터 설치되었다. 그 不滿이 中國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이지만, 新羅時代에 이미 大規模의 측정장치를 建造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時代的으로 빠르다. 中國의 告成鎮(洛陽의 東南 30마일)에 설치된 觀天臺(周

公測景臺)는 元代의 것이다.

5. 첨성대의 頂上이 觀測器具를 올려놓기에는 너무 좁다고 하는 意見이 있었으나, 簡儀 정도 올려 놓고 數名이 관측하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納得되었다. 그러나 頂上이 좁다는 見解는 아마 現代의 天文臺를 腦裏에 두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夜間의 時를 측정하고, 天變이나 氣象變化를 觀測할 정도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6. 신라는 56代의 王位를 이어 가면서 992年間 政權을 잡고 그 서울은 慶州를 벗어난 일이 없었다. 倭寇의 약탈, 高句麗에 대한 견제, 辰韓과 任那의 吸收, 百濟와의 交戰, 三國統一, 天然災害 등 王은 占星術에 기대하는 바가 컸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나라에서 첨성대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타당한 판단이 아닌 듯하다. 現存의 첨성대가 天文觀測所가 아니라면 우리는 慶州市内에서 眞의 첨성대를 찾으려 다녀야 할 것이다.

이에 나는 일단 古典을 믿고 첨성대를 天文氣象觀測을 위한 시설이라고 主張하고 싶다. 너무 推想에 지나쳐 文獻을 떠나서 근거없이 억지 고집을 쓸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瞻星臺 討論 有感

仁川大 機械工学科 金 在 官

瞻星臺가 天文臺냐, 祭壇이나 또는 象徵的 建築物이냐의 論爭을 불러 일으킨 3次에 걸친 瞻星臺討論會는 結果적으로 瞻星臺의 神秘性에 대한 關心을 크게 높여 놓았다. 參席한 많은 學者들이 제각기 다른 角度와 專門的 立場에서 各樣多色으로 研究調査한 結果를 놓고 熱띤 討論을 벌인 結果 심지어 史學의 門外漢까지도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마저 갖게 하였다.

또한 討論零圍氣가 어느 學術會議보다도 活潑했고 熱氣가 감도는 까닭에, 瞻星臺에 關한 學者들의 이 큰 關心과 研究熱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넓고 깊게 擴大시켜 瞻星臺의 眞價를 빛내게 하는 方法은 없을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왜냐하면 瞻星臺만큼 우리나라 사람

들의 文化意識 속에 뿌리박고 있는 影像이 큰 것을 만 어떠한 것에서도 發見할 수 없기 때문에 瞻星臺에 關한 어떠한 結論도 신중에 신중을 期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短時間內에 斷片的으로 이루어진 分散된 研究調査로써 論爭을 繼續하다가 자칫하면 現實(瞻星臺)을 벗어난 討論으로 치닫는 習性的 史例를 되풀이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研究對象이 1300년이 넘는 옛날에 세워졌고, 그것이 또한 世界的으로 드물게 보는 特異한 形態와 이름을 가진 遺物일진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지녔던 正體를 正確히 判定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은 明白하다. 더구나 歷史的 考證資料가 不足하고, 또한 그에 대한 研究調査마저 여지껏 別로 体系的이고도 綜合的으로 이루어진 바 없고 보니 누구나 한가지씩의 새로운 理論을 提起할 수도 있는 素地가 있어 問題는 더욱 複雜해진다.

瞻星臺에 關한 이제까지의 文獻資料에 그의 機能에 關한 仔細한 記錄이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意見이 나올 수 있는 餘地는 많으나, 한가지 確實한 것은 그의 各稱이 「星臺」로 모든 文獻에 一貫되게 記錄되어 있고, 「星壇」 또는 象徵的 構築物로서의 이름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祭天石壇」으로서의 星壇과는 엄연히 區別되고, 「별」과 관계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이 올라서는 「臺」로서만 記錄되었다는 것은 한가지 不變의 歷史的 事實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된다. 오늘의 科學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當時의 時代背景을 감안한다면 星臺가 天文臺의 口實과 아울러 祭天 또는 占星의 儀式場의 役割을 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建築當時의 新羅사람들의 文化도와 智慧로 보아 外國曆法 導入 以前에 그들의 獨創的 能力을發揮하여 天文臺를 만들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기도 생각된다. 한편 瞻星臺가 여러가지의 複合的 機能을 遂行하였다면 現存하는 古代 文獻上에 한번쯤은 別途機能의 이름이 나올 법한데 아직 發見되지 않은 것 같다.

그간 3次에 걸친 瞻星臺討論會는 瞻星臺에 對해 提起할 수 있는 모든 意見과 問題點을 露出시키는 데 크게 寄與한 것 같다. 이제 앞으